

영화 <잠>에 나타난 ‘24/7 자본주의’와 주체의 불안정성

김형식*

1. 들어가며: 잠을 앗아가는 사회
2. ‘24/7 자본주의’와 소진된 주체
 - 2-1. 외부 세계의 침입과 잠의 종말
 - 2-2. 은폐된 원인과 불안정 노동
3. 주체의 강박과 이데올로기적 환상
 - 3-1. 실패의 공포와 내면화된 규율
 - 3-2. 꿈의 실재성과 현실의 환상성
4. 나오며: 체제 너머의 상상

국문초록

충분한 수면은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한국은 만성적 수면 부족 국가이며, 수면의 질 역시 최하위에 속한다. 영화 <잠>은 수면장애를 소재로 한국을 살아가는 주체가 처한 불안정성에 관한 징후적 텍스트다. ‘24/7 자본주의’는 휴식이나 중단 없이 무한히 작동하며 팽창해 가는 자본주의적 생활세계와 배치를 의미한다. 그 안에서 주체는 무방비한 취약 상태 속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정신병리적 증상으로 빠져든다. 영화의 두 주인공 현수와 수진은 모두 24/7 자본주의 속에서 버티다가 몸과 정신이 모두 무너져 내린 주체다.

현수는 연극배우라는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른 직업을 전전하며 일상적인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현수는 수면 중 폭력적 행동이나 자해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의사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는 대신 증상 치료만을 시도하면서, 현수의 증세는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수진은 성공과 '정상 가정'을 향한 강박적 집착 속에서 현수를 억압하여 이를 달성하려 시도하는 인물이다. 수진은 현수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며 격려를 빙자한 압박감을 가한다. 현수의 직업적 실패가 곧 자신의 실패이자 가정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수진은 현수를 규율하고 억압하는 대타자로 기능하며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다.

수면장애와 정신병리적 증세는 24/7 자본주의하에서 소진당하고 탈진해 버린 두 주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이다. 이를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질병을 경유한 탈주를 시도하지만, 바깥을 허락하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는 필연적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 두 사람은 24/7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길 포기하고 다시 익숙한 노동으로 복귀하며 일시적 봉합에 이른다. 이는 우리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24/7 자본주의 너머를 상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제어: 24/7 자본주의, 주체, 불안정성, 이데올로기, 환상)

1. 들어가며: 잠을 앗아가는 사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적당한 시간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의 리듬이 깨져 쉽게 피로해진다. 낮 동안 무기력증과 능률 저하를 비롯한 각종 심리적·신체적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어, 제대로 집중하거나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수면 부족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불안, 우울감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킨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비만을 비롯한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¹⁾ 하지만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하루 6.3시간으로 다른 나라보다 42분가량 짧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하루 7시간 51분을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회원국의 평균 수면시간인 8시간 22분에 비해 31분 짧은 수치다. 평균 8시간 48분을 수면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57분이 짧다.²⁾ 수면 만족도는 35%로 최하위로 세계 평균인 49%보다 14%가 낮다.³⁾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수면 부족의 원인으로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장시간의 노동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부담이 꼽힌다.⁴⁾ 살인적인 경쟁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 하나 마음 편히 잘 수가 없는 사회인 셈이다. 낮에 겪는 과도한 사회적 압박과 피로, 이에 따른 불안감이 사적이고 내밀한 시간과 공간마저 잡아먹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의 수는 2018년 85만 5천 명에서 2022년 약 110만 명으로 28%가량 급증했다.⁵⁾ 요컨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적게 수면하지만, 그마저도 깊이 잠에 빠져들지 못한 채 수면장애에 신음한다. 부족한 수면시간과 수면장애는 활기차게 활동해야 할 낮 동

1) 심희진, <“30분만에 잠 못들면 수면장애”...주말 밀린 잠 잘때 ‘이것’만은 꼭 [생활 속 건강 Talk]>, 『매일경제』, 2024. 5. 11.

2) 김현철, <‘잠 못자는 한국인’ 수면시간 7시간51분 꼴찌...OECD 평균은 8시간22분>, 『뉴스1』, 2021. 3. 19.

3) 오수연, <[잠 못 드는 한국인] 한국인 65% “수면 부족”...슬리포노믹스가 뜬다>, 『아주경제』, 2020. 5. 15.

4) 장은수, <[장은수의이책만은꼭] 수면 부족 국가>, 『세계일보』, 2023. 10. 23.

5) 류근석, <국내 수면장애 환자 수 4년 새 28% 증가... 한국인 44% 7시간 미만 수면>, 『위메이크뉴스』, 2024. 3. 15.

안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수면장애로 이어지며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유재선 감독의 <잠>은 현대인이 처한 불안정성과 수면장애를 다룬 영화다.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잠>이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 가장 유니크한 공포 영화”라며, 유재선을 가리켜 “너무나 새롭고 독창적”인 “새로운 괴물 신인 감독”이라고 찬사한 바 있다.⁶⁾ <잠>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제44회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각본상을 수상했고, 제76회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되기도 했다. 관객들에게도 호평받아 2023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드물게 손익분기점을 넘긴 흥행 영화로 기록되었다.⁷⁾ 표면적으로 <잠>은 오현수(이선균 분)가 겪는 수면장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내 정수진(정유미 분)의 분투, 그리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영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화평론가 김현승은 영화 <잠>에서 보여주는 수면장애란 그저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 영화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현대 사회의 알레고리”라고 지적한다.⁸⁾ <잠>은 불면증과 수면장애의 증상이나 이에 대처하는 치료와 회복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다. 대신 영화는 집요하게 불안정 노동자와 실직자로서 주체가 느끼는

6) 양유진, <봉준호 감독 “잠” 유재선, 새로운 괴물 신인 감독의 탄생> 격찬, 『마이테일리』, 2023. 9. 4.

7) 2023년 개봉한 영화 중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영화는 <범죄도시 3>, <서울의 봄>,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30일>, <잠> 등 총 7편뿐이다. (이이슬, <영화관 관람객 코로나 이전의 ‘반토막’>, 『아시아경제』, 2024. 1. 16.)

8) 김현승, <[김현승의 시네마 크리티크] 과감한 엿박자가 이끌어낸 쾌감, <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3. 9. 11.

불안감과 압박감, 그리고 이로부터 강박증에 사로잡히기까지의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는 데 집중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겉으로 드러난 질병이라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징후적 무의식, 두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살펴보려 한다.

<잠>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소윤과 김윤희의 연구가 있다. 이소윤은 <잠>을 무속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수진과 현수 모두가 '취약성'의 상태에 놓여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수진은 가족을 와해시키려는 현수에 맞서 샤먼이 되어 의례를 주재한다. 현수의 마지막 행동이 수진에 대한 '화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영화는 곳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⁹⁾ 김윤희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수진의 '망상적 신념'에 주목한다. 수진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결핍으로 인해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수진은 현실 논리로 해명되지 않는 상황과 직면하여, 무속이라는 초월적 논리를 빌리며 광기로 나아간다.¹⁰⁾ 두 연구는 <잠>을 무속이나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소윤은 수진과 현수의 증상을 유년기 경험이나 직업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구조적 조건의 영향을 다루지 않는다. 김윤희 역시 현수의 수면장애를 단순히 수진의 억압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환원하며, 그가 처한 불안정성을 다루지 않는다. 요컨대 두 연구는 끝없이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분쇄 당하고 파국으로 나아가는 주체의 내면을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간과한 부분에 주목하여 <잠>을 새롭게 바라보려 한다.

9) 이소윤, 「영화 <잠>(2023)과 신탁 콤플렉스」, 『한국무속학』 제51호, 한국무속학회, 2025, 66-90쪽.

10) 김윤희, 「영화 <잠>에 재현된 현대인의 불안과 믿음」, 『어문논집』 제102호, 중앙어문학회, 2025, 195-220쪽.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표면화된 증상에 속지 않으려면, 의미화 되지 못한 채 남겨진 잔여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의미화되지 못한, 의미화 잔여로서 존재하는 왜상, 오점과도 같은 요소”¹¹⁾야 말로 상징적 질서에 복종하거나 포섭되지 않는 공백이자 오점으로서 현실의 환상을 깨부수고 은폐된 ‘실재’¹²⁾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증상의 실재는 영화 내에 본격적으로 의미화하거나 전경화되지는 않지만, 스쳐 가듯 언급되는 대사와 장면 속에 숨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라는 현상 너머의 숨겨진 징후적 무의식, 두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면장애에 시달리게 되면서 현수는 직업을 상실하게 된다. 수진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격려로 남편에게 끝없는 노동을 강요한다. 불안정한 노동에서 오는 압박감, 쉼 없는 노동에의 강박과 성공을 향한 집착은 두 사람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간다.

〈잠〉은 끝없이 작동하며 확장되는 자본주의의 속성과 이를 내면화한 주체가 느끼는 위태로움과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징후적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고용 불안과 실직의 위기가 반복되고 실패와 낙오의 위협이 일상화 되면서 주체는 물화(物化)되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표류한다. 우리는 〈잠〉을 통해 현시대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과 폭력성이 어떻게 주체를 비인간화하고 정신 병리적 상태로 망가뜨리는지 살펴볼 수 있다. 현수의 수면장애는 개인적 스트레스나 초자연적 빙의 현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불안정 노동과 자본주의가 주체의 수면을 침식한 결과이

11) 박제철, 「영화-감각을 윤리적 행위로 '반복하기'」 김소연 역음, 『라캉과 한국영화』, 도서출판 b, 2008, 70쪽.

12) 라캉에게 있어 실재란 “사유의 그물에 잡히지는 않지만 의식 외부에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존재의 질서”(홍준기, 『라캉과 현대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208쪽)에 해당한다. 이는 쉽게 포착되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의 질서’로서의 실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며, 수진의 강박 역시 체제가 주체에게 내면화시킨 규율과 성공 이데올로기의 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은 주체의 증상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체제의 산물로 바라보며, 개인 심리에 한정되었던 기존 논의를 구조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24/7 자본주의'와 소진된 주체

2-1. 외부 세계의 침입과 잠의 종말

영화 <잠>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수면장애를 겪는 현수의 모습과 이를 치료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는 수진의 모습을 그린다. 그러나 현수의 이상 행동은 점점 악화되어 간다. 2장은 출산 이후 스트레스와 강박증이 극심해지는 수진의 모습과 이에 고통받는 현수를 그린다. 현수가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대신 수진의 강박증과 이상 행동이 과도해지며 정신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른다. 3장에서 수진은 무속 신앙에 의존하며 현수의 몸에 아랫집 할아버지가 빙의되었다고 믿는다. 현수는 수진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사태를 일단락짓기 위해 임기응변을 사용해 위기를 넘긴다. 각각의 장은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인해 잠을 빼앗긴 현수, 끝없는 노동과 성공의 강박으로 인해 피폐해지는 수진, 그리고 노동 상태로 복귀하며 평화를 되찾는 가정의 모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화는 곧히 잠든 현수의 코골이로 시작한다.¹³⁾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

13) 이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코를 골며 잠든 수진의 모습과 수미쌍관을 이룬다. 영화에서 사건은 '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고, 수진이 들어온 누군가가 나갔다고 믿게 되면서 일단락된다.

지는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는 현수의 고단한 심신 상태를 보여주는 듯하다. 화면이 밝아지며 침대에 누워 자는 현수와 수진의 어렴풋한 윤곽이 드러난다. 인기척에 문득 눈을 뜬 수진은 침대맡에 걸터앉은 현수를 발견한다. 현수는 “누가 들어왔어.”¹⁴⁾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남기더니 다시 쓰러져 잠든다. 다음 날 현수는 간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현수의 현실이 모종의 이유로 중단된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사건은 시작된다.

현수가 증언거린 말은 그가 출연한 드라마 단역의 대사로, 현수가 수면 중에조차 배우로서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트라우마가 증상으로 발현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외부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가정의 내부 혹은 주체의 무의식 내부로 침범하고 내면화(‘들어왔어’)되어 충분히 휴식하고 여가를 즐겨야 할 사적 공간조차 먹여 치웠다. 이제 현수에게 있어 가정이란 더 이상 포근하고 안락한 내부의 장소, 지친 몸을 이완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증명(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냉혹한 공간이며 외부 세계의 업무가 연장되는 일터와 다름없다. 침대 위에서조차 주체는 휴식하지 못한다. 사회적 경쟁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수면을 집어삼켜 무한한 각성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가정은 바깥 세계의 침입에 노출되고 닳은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쉬지 않고 작동하며 주체를 착취하고 유린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가리켜 조너선 크레리(Jonathan Crary)는 ‘24/7 자본주의’라 지칭한다. ‘24/7’이란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과 일주일을 의미하는 7일이 더해진 단어로, 휴식이나 중단 없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연중무휴의 항구적 작동 상태를 뜻한다. 멈추지 않고 항시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방송 등

14)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든 대사는 연구자가 영화를 보며 직접 옮겨 적은 것이다.

을 지칭할 때 24/7의 수식어가 쓰인다. 크레리에 따르면 '24/7 자본주의'란 “중단 없이 팽창해 가는 21세기 자본주의 생활세계”가 초래하는 “잠과 깨어있음의, 조명과 어둠의, 정의와 공포의 변화하는 배치”에 해당한다.¹⁵⁾ 중단 없는 자본주의의 작동과 확장으로 의해 수면과 각성 상태, 낮과 밤의 배치가 교란되고, 그 안에서 주체는 “노출·무방비·취약성”의 상태로 빠져든다.¹⁶⁾

이어서 크레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비상사태와 같은데, 흡사 어떤 극단적 상황에 대한 반응인 듯 한 밤중에 갑자기 켜진, 일렬로 늘어선 투광 조명등이 결코 꺼지지 않고 영구적 상태로 일상화되어버린 그런 경우와 같다. 지구는 중단 없는 일터, 또는 무한한 선택지와 과제와 선정물(選定物)과 판짓거리가 있는, 늘 열려 있는 쇼핑몰이 된다. 불면 상태는 생산하기, 소비하기, 폐기하기가 쉬지 않고 이뤄지는, 그리하여 삶의 소진과 자원의 고갈이 재촉되는 상태다.¹⁷⁾

24/7 자본주의는 휴식 없는 노동과 소비로 가득한 불야성의 세계다. 휴식 없이 영구히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극단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점등해야 할 조명등을 꺼뜨리지 않고 무한히 지속시킨다. 따라서 24/7 자본주의는 비상사태의 일상화이자 전쟁 상태의 항구적 지속이다. 여기서 주체는 잠자는 시간조차 박탈당한 채 불면의 상태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생산과 소비, 폐기의 사이클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고갈되고 소진당하고 만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수면시간을 침범하여 망가뜨리려는 이유에 관해, 조

15) 조너선 크레리, 『24/7 잠의 종말』, 김성호 역, 문학동네, 2014, 23쪽.

16) 위의 책, 23쪽.

17) 위의 책, 36쪽.

너선 크레리는 수면과 자본주의가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수면이란 “현시대 자본주의의 게걸스러움에 인간이 가하는 심대한 모욕”¹⁸⁾이다. 수면을 취하는 순간만큼은 주체가 자본주의의 게걸스러움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벗어나는 시간이며, 자본주의의 생산, 소비, 폐기의 사이클로부터 이탈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수면이란 자본주의의 수익성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무용한 시간으로 작동한다. 그동안 수면은 인간이 살기 위해 필수적인 ‘불변의 생물학적 조건’으로, 자본주의조차 점령하기 힘든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¹⁹⁾ 하지만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식욕, 성욕, 인간관계 등)을 상품화·금융화하고 일상 전체를 전방위적이고 미시적으로 침범하고 규율하는 데 성공한 24/7 자본주의는 수면이라는 금단의 영역마저 식민화하기 시작했다.

수면을 둘러싼 자본주의와 주체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Franco ‘Bifo’ Berardi)에 이르러 한층 선명해진다. 베라르디의 초점은 자본이 무엇을 착취하는가에 놓인다. 베라르디에 따르면 오늘날 자본주의는 주체의 신체와 물리적 노동력을 착취하던 ‘산업자본주의’의 단계를 넘어, 언어·창의성·감정처럼 과거에는 인간의 ‘영혼’으로 여겨지던 능력마저 가치 생산에 동원하는 ‘기호자본주의(Semiocapitalism)’의 국면에 들어섰다. “기호자본주의는 신경 에너지의 착취에 바탕”²⁰⁾을 두고 있기에, 주체의 끊임없는 주의와 각성을 요구하며, 수면 역시 공격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본주의의 무한한 성장을 지탱하기 위서는 인간을 쉽 없이 자극하고 수면을 공격하여 깨어있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¹⁾ 따라서 자본주의란 어떠한 아늑한 장소도 존재하지 않는 “불면증

18) 위의 책, 26쪽.

19) 위의 책, 26쪽.

20)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죽음의 스펙터클』, 송섬별 역, 반비, 2016, 171쪽.

에 걸린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이며, “이성과 삶에 대한 존중을 빼앗긴 대가로 생산성이 늘어”나도록 강제한다.²²⁾

베라르디는 증권거래를 위해 약을 먹어가며 밤낮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금융 에이전트’를 예시로 들고 있지만,²³⁾ 한국에서는 일반인조차 해외증권과 가상화폐 등락 그래프를 주시하며 기꺼이 수면을 추방하고 자본주의 안으로 포섭되는 일반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 대다수는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1,601시간보다 314시간 많다. 주당 48시간 넘게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율 역시 18.1%로 평균값인 7.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²⁴⁾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중세 시대 농노보다도 길며, 노동과 노동 사이의 휴식 시간은 더욱 짧다.²⁵⁾ 일반적으로 노동시간과 수면시간은 반비례하기에, 이와 같은 극한의 노동환경에서 살아가는 주체가 제대로 수면할 수 있을 리 없다. 이는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우울증이나 자살률 증가로 발현된다.

그렇다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박탈당한 주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이를 정신 병리적 장애 증상과 관련짓는다. 이에 따르면 해소되지 않는 긴장 상태에서 극도로 지쳐버린 주체는 수면이 가져다주는 회복 효과를 누리지 못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다. 빠른 변화와 극단적 경쟁 하에서 정서적·신체적 과로로 지치고 버틸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번아웃, 우울증, 불안장애가 만연하게 되면서, 자살

21) 위의 책, 202쪽.

22) 위의 책, 203쪽.

23) 위의 책, 203쪽.

24) 심언기, <근로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저출산 韓, 노동환경 개선 시급”>, 『뉴스1』, 2023. 7. 16.

25) 조너선 크레리, 앞의 책, 204-205쪽.

를이 충격적으로 치솟고 있다.²⁶⁾ 요컨대 “자본주의 성공의 핵심 밑에는 정신 의약이라는 서브-플롯이 깔려 있”²⁷⁾으며, 개인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마저 심각하게 위협한다.

잠에서 깨어나 알 수 없는 소리를 증얼거리는 현수의 모습은 그의 수면이 24/7 자본주의에 침략당해 황폐해져 버렸을 뿐 아니라, 정신마저 침식된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진이 다시 잠에 들려는 찰나,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거실로 나온 수진은 베란다 문에 슬리퍼가 끼어 닫히지 않아 바람에 움직이면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상황을 파악한 수진은 돌아가 잠을 청한다. 이때 카메라는 침대에 누운 현수의 한쪽 발 아래에 떨어진 슬리퍼를 비춘다. 베란다로 나가다가 한쪽 슬리퍼가 벗겨져 문이 열린 채 둔 건 현수였다. 현수가 몽유병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문을 열어둔 것이다. 이후 수면 중 발생하는 현수의 이상 행동은 더욱 심해진다. 현수는 얼굴이 피범벅이 될 때까지 손톱으로 뺨을 긁어대다가 하면, 안방 창문을 열고 아파트 바깥으로 뛰어내리려 한다. 물론 이는 현수가 자던 중 무의식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깨어난 현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현수만의 증상은 아니다. 수진 역시 수면 중에 발생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아랫집 주민 민정(김국희 분)과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민정은 층간소음을 참다못해 올라왔다면서,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비명까지 들려온다며 항의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수진은 민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주체의 무의식은 트라우마적 침입에 의해 분열되고 단절당한다. 그리고 주체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그러한 트라우마적 단절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²⁸⁾ 두 사람이 아무런 상황도 기억하지 못

26)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지식』, 김재희·송은주 역, 아카넷, 2022, 33-34쪽.

27) 위의 책, 35쪽.

하는 이유는 그들의 무의식이 트라우마적 침입(24/7 자본주의의 침입)에 의해 단절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현수에게 나타난 수면장애 증상은 그에 대한 반응에 해당한다.²⁹⁾ 놀란 수진은 현수를 병원에 데려간다. 의사(윤경호 분)는 현수에게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치료받는다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호기롭게 장담한다. 그러나 의사의 말이 무색하게 현수의 증상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진다. 의사는 현수의 이상 행동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저 드러난 현상을 바탕으로 동어반복의 진단을 내리고 (현수가 렘수면 행동장애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렘수면 행동장애이기 때문이다) 약물과 행동 치료를 종용할 뿐이다. 병원 치료가 차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수의 증세는 점차 악화된다. 급기야 현수는 반려견 후추를 냉동고 안에 집어넣어 살해하기에 이른다.

2-2. 은폐된 원인과 불안정 노동

현수의 상태가 주체의 내면마저 침식해 버린 24/7 자본주의의 속성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수를 렘수면 행동장애로 분류한 정신의학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신분석학자 파울 페르하에허(Paul Verhaeghe)는 정신의학을 두 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심리사회학적(biopsychosocial)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여러 환자가 유사한 증상과 행동을 보일지라도 이를 동일하게 진단해서는 안 된다. 진단 시에는 표면적인 증상뿐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환경을 함께

28) 슬라보예 지젝, 『자유: 치유할 수 없는 질병』, 노윤기 역, 현암사, 2025, 98쪽.

29) 현수와 달리 수진에게는 기억의 단절만 보일 뿐, 어떤 가시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더욱 심각한 정신병리적 장애 증상을 예고하고 있다.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치료 역시 환자 개개의 특성과 그가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와는 달리 ‘질병 모델’은 환자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밖으로 드러난 증상과 행동만을 진단과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다. 환자 개개인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더라도 증상이 같다면 진단은 동일하게 내려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페르하에허는 정신의학의 역사는 두 가지 학파가 번갈아 가며 권력을 장악해 온 과정에 해당하며, 현재는 질병 모델이 헤게모니를 잡고 득세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³⁰⁾

파울 페르하에허는 현재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어버린 질병 모델에서 특정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각각의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서로 다른 주체이기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해서 곧바로 동질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³¹⁾ 이에 따르면 질병 모델은 증상을 질병으로 해석하는 ‘순환논법’에 사로잡혀 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네가 주의력이 결핍(AD)되고 과잉 행동(HD)을 보이는 이유는 네가 ADHD기 때문이야. 왜 ADHD냐고? 그건 네가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야.” “네 감정 기복이 심한 이유는 네가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이야. 네가 조울증 환자인 이유는 뭐냐고? 네가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이지.” 여기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과도한 감정 기복은 모두 질병으로 인해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런데 질병 모델은 증상에 관한 설명을 그럴듯한 의학적 용어(약어)로 바꾼 뒤, 다시 원인으로 상정하여 제시하는 순환논법을 통해, 스스로 증상의 근본적 원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한다.³²⁾

30) 파울 페르하에허,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장혜경 역, 반비, 2015, 200쪽.

31) 위의 책, 203-204쪽.

32) 위의 책, 201쪽.

파울 페르하에허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만연해지면서 초래된 심리·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근본적 원인은 외면한 채 현상의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이라 비판한다. “교육 자문, 보충수업, 심리치료, 가족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사회적 문제의 약품화”³³⁾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드 주는 ‘사업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모든 게 의약품이면 해결된다는 식이다. 오늘날 정신의학 산업은 24/7 자본주의로 체제에서 지치고 소진되어 이탈한 주체들의 증상만을 약물로 비가시화한 뒤, 자본주의 사이클 내부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정신의학 산업은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도우며, 거기에 기생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의 봉사자로 전락했을 뿐, 주체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이는 <잠>에서 현수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의사: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런 패턴일 때는 ‘렘수면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 보통 신경 세포가 화학적 불균형 상태일 때 발생하는데, 말은 거창하지만 생각보다 흔합니다.

(중략)

수진: 고칠 수 있는 거죠? 렘수면.

의사: 네. (중략) 조금해하지 마시고, 안내드린 대로만 꼭 따라 하시면 어느새 좋아지실 겁니다.

의사는 질병 모델의 순환논법을 답습할 뿐, 현수를 둘러싼 환경이나 그가 처한 상황, 심리적 상태 등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신 생활 습관이 문제라며 술 마시는 걸 금지하고, 10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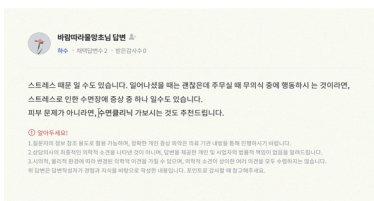
33) 위의 책, 222-223쪽.

고, 침실은 지나치게 덥지 않은 온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다.

반면 심리사회학적 모델에 의하면 현수의 불면 증상 이면에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현수가 처한 상황은 극의 초반부터 드러난다. 현수가 처음으로 보인 수면장애 증상 이후, 화면은 두 사람의 단란한 신혼집을 비춘다. 꽃, 베란다 텃밭, 아기용품 등 따뜻한 느낌의 신혼집 살림살이를 훑은 카메라는 뒤이어 현수를 인터뷰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액자를 보여준다. 신혼집 벽 한편에 부부의 사진, 곧 태어날 아기의 초음파 사진과 함께 현수의 기사가 걸려 있다.



〈그림 1〉



〈그림 2〉

행복한 표정의 부부 사진 옆에 자랑스레 걸려 있는 현수의 기사는 마치 현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배우라는 인상을 풍긴다. 〈그림 1〉³⁴⁾의 가운데 걸린 기사 제목은 “관객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는 배우 오현수 - 대학로 뒤편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다. 이 기사는 현수가 배우로 일하면서 느끼게 된 보람과 더불어 현수의 평소 품고 있던 배우로서의 직업관과 연기관을 소개한다. 현수는 관객 수에 연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행복한 기억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34)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든 장면은 연구자가 영화를 보며 직접 캡처한 것이다.

앞으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현수의 직업이 지닌 밝은 면을 부각시키며 현수가 배우라는 직업에 느끼는 자긍심과 함께 예술가로서의 연기 철학을 보여준다.

주목해야 할 건 이 기사 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기사다. 기사의 제목은 “순탄치 않은 배우의 길... 오현수씨가 사는 법”이다. 전면의 기사가 현수를 ‘배우’라 지칭했다면, 이면의 기사는 현수를 ‘씨’로 호칭한다. 앞의 기사에 덮여 전문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기사는 대학로 극단의 배우로서 현수가 살아가는 고단한 현실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수는 “몸이 전부인 배우이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생계를 이어 나가기엔 연극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배기사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수는 쪽잠을 자며 연기를 할 만큼 연기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지만, 동시에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전전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생계를 이어가기에 연극배우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수가 형편없는 연기 실력을 지닌 별 볼 일 없는 배우는 아니다. 뒤이어 카메라는 연극협회와 공연예술협회에서 받은 ‘연기상’과 ‘젊은 연기상’의 트로피를 비추며 현수가 실력 있고 전도유망한 배우였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때 시각 정보와는 별개 맥락의 음성 정보가 외화면으로부터 투입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음성은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아가는 다른 부부의 인터뷰다. 부부는 이렇게 말한다. “우여곡절은 참 많았죠. 금전적인 부분에서 재산을 다 잃고...” 이후 소리가 페이드 아웃되어 사라진다. 음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재산을 모두 잃고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라디오 속 부부처럼 현수와 수진 부부의 상황 역시 그리 녹록지 않음을 암시한다. 가려진 기사와 스쳐 가는 라디오 소리는 겉으로 드러난 밝은 부분 이면에 감추어진 고단한 현실, 현상 너머의 실재를 보여준다.

앞에 내세우는 기사(이는 현수가 상징화하고 전시하고 싶은 현실이다)에서 현수는 배우로서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느끼며 더 나은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수의 실제 현실은 다르다. 기사에서 현수는 쪽잠을 자가면서 연기에 몰두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진실이다. 실은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연기를 놓지 못하기에 쪽잠을 자게 되었을 공산이 크다. 현수의 직업은 언제든지 일이 끊겨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 설사 운 좋게 일이 이어지더라도 가족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갈 만큼의 보수를 받지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다. 이는 현수가 비정규적이고 한시적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라르디는 오늘날 “불안정성은 사회적 관계의 일반적 형태”가 되었으며, “사회적 구성과 심적·관계적·언어적 특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³⁵⁾ 이때 불안정성은 “우발적이고 불확실하고 흔들린다는 의미”³⁶⁾로, 지속될 경우 공황, 우울증, 불안, 무관심과 같은 정신병리학적 범주로 이어지게 된다.³⁷⁾

〈그림 2〉에서 수진은 현수의 이상 행동에 관해 인터넷에 검색해본다. 이때 현수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질문에 “스트레스에 의한 수면장애”일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달린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한다는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야말로 현수가 겪는 수면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게다가 아기가 곧 태어날 예정이기에 현수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현수가 처한 저소득·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노동 상황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결국 수면장애라는 정신

35)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미래 이후』, 강서진 역, 난장, 2013, 60쪽.

36)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붕기』, 유충현 역, 갈무리, 2012, 125쪽.

37) 위의 책, 133쪽.

병리적 증세로 발전한다. 수면장애는 다시 현수의 노동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자다가 좀비처럼 일어나 음식을 섭취하고는 반려견 사냥에 나서는 현수의 모습은, 영혼마저 착취하는 기호자본주의 안에서 그의 영혼이 수면 중에도 무한한 각성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현수는 의사의 조언대로 10시 이전에 잠들기 위해 야간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던 도중 얼굴을 마구 긁어 상처를 내는 바람에 단역으로 출연하던 드라마마저 그만둔다. 결국 현수는 예정된 다른 촬영 일정마저 모두 취소하기에 이른다. 직업을 상실하게 된 현수는 더욱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게 되고, 이는 수면장애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의사가 제시한 증상 치료와 약물 치료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현수의 수면장애는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지시를 충실히 따랐지만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않자, 자신감에 차 있던 의사는 치료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할 뿐이다. 이에 수진은 의사를 “돌팔이 새끼”라 부르며, 의사보다 무당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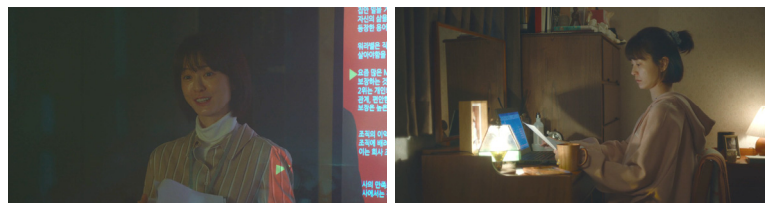
3. 주체의 강박과 이데올로기적 환상

3-1. 실패의 공포와 내면화된 규율

현수가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무력한 남편이라면, 수진은 그런 현수의 역할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수진은 극 전반에서 전동 드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처음 수진은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기 삼아 전동 드릴을

들고 나간다. 두 번째로 수진은 현수의 수면장애가 심각해지며 아기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고 전동 드릴을 사용해 현수를 침실에 가둔 채 문을 봉쇄한다. 세 번째로 수진은 아랫집에 살던 할아버지의 영혼이 현수의 몸에 들어왔다고 믿게 되고, 할아버지의 딸 민정을 납치하여 머리에 전동 드릴을 들이밀면서 공격용 도구로 사용한다. 이처럼 수진의 정신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전동 드릴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고 해치는 무기로 변하게 된다. 이때 수진이 든 드릴은 무기력하고 초라한 남편 현수를 대신하여, 수진이 가정의 경제력과 결정권을 쥐고 있음을 상징하는 팔루스(phallus)처럼 보인다. 현수는 수진보다 연장자이지만 가정 내에서 무엇도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다. 현수가 발화하는 의견과 제안은 번번이 수진에 의해 좌절당하고, 수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현수를 조종한다.

수진은 대기업 식품업체 팀장으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영화는 중간중간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삽입한다. 수진의 노동 장면 역시 전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배경처럼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장면과는 별개로 다른 내용의 대사가 보이스오버되는 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는 수진이 현수와 다른 형태의 압박감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림 3〉

〈그림 4〉

<그림 3>은 무거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출근한 수진이 회사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노동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수진은 2030 세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며, 이전처럼 일에만 전념하는 대신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소개한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무색하게, 수진은 직장에서도 집에서든 결코 노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깊은 밤에도 수진은 잠자리에 드는 대신 밀린 잔업을 처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분석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수가 침대에 누워 자는 순간에도 수진은 휴식을 취하거나 마음 놓고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현수를 대신하기 위해서라도 수진은 쉬지 않고 노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라르디는 수면시간마저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광신적인 자기희생'이 전 세계적인 정언 명령으로 등극했다고 지적한다.³⁸⁾ 수진은 자신이 희생하며 일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제대로 건사 될 수 없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조너선 크레리는 24/7 자본주의의 '무차별의 시간'이 인간 삶의 허약성을 극도로 몰아가는 "최종적인 자본주의적 신기루"³⁹⁾에 해당한다고 역설하며, 이제 이러한 체제의 지속과 "맞물려 돌아갈 인간 주체가 형성"⁴⁰⁾되고 있다고 말한다. 24/7 자본주의에서 주체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무한히 일"⁴¹⁾해야 한다고 여겨지며, 세계는 이런 무한한 노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마우리치오 랏자라토(Maurizio Lazzarato) 역시 현대 자본주의의 목표가 "모든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든 노동해야 한다"라는 "완전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⁴²⁾ 수진은 24/7 자본주의 시스템의 작동

38)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미래 가능성』, 이신철 역, 에코리브르, 2021, 208쪽.

39) 조너선 크레리, 앞의 책, 25쪽.

40) 위의 책, 17쪽.

41) 위의 책, 같은 곳.

42) 마우리치오 랏자라토, 『정치 실험』, 주형일 역, 갈무리, 2018, 45쪽.

방식을 내면화한 주체로 무한한 노동을 일상적이고 당연한 ‘정상상태’로 여긴다. 24/7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주체가 어떤 상태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더라도 부단히 노동해야만 한다. 자본주의적 순환에 예측된 채 성실하고 순종적인 노동자와 사치스러운 소비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랏자라또의 분석대로라면 설사 수진처럼 몸이 무거운 임부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수진의 광신적인 노동 강박에도 불구하고, 출산 이후 수진은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된다. 베라르디에 따르면 현대인은 “일이 정체성과 존엄성의 근거라고 믿도록 교육 받아왔”으며 “일하는 환경의 맥락에서만 사회화”되었기에 일이 사라지면 마치 자신의 가치가 사라진 듯한 우울감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⁴³⁾ 수진의 강박증과 이상 행동이 현수의 수면장애를 압도할 만큼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이때부터다.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되면서 수진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일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에서 실패하고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수진의 강박적 불안은 방향을 돌려 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수진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수의 수면장애를 치료하여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는 것, 그리고 남편의 이상증세로부터 딸을 지켜 ‘정상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수는 24/7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가공할 중압감을 어떻게든 견디고 버티기 위해 애쓰다가 종내에 지치고 부서져 버린 주체다. 현수는 수면장애라는 질환을 경유하여 인간을 최후까지 소진시키는 자본주의로부터 이탈한다. 자는 순간에조차 자본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체는 결국 망가져 버린다. 따라서 현수의 수면장애는 24/7 자본주의의 착취에 남

43)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미래 가능성』, 앞의 책, 195쪽.

김없이 고갈되어 버린 주체에게 동반되는 작동 이상이다. 현수에게 필요한 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그리고 따뜻한 위로지만, 수진은 이를 나약함이자 패배로 여긴다. 수진이 보기에 현수가 연기를 그만두는 건 사회적 경쟁으로부터의 탈락이자 무책임한 회피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기란 사회적 탈락이자 낙오이며 죽음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든 버텨 살아 남고 성공해야 한다.

현수: 나... (수진의 배에 대고 말하듯) 이제 그만둘까 봐.

수진: (책망하듯 어깨를 치며) 뭘?

현수: (짧게 한숨을 쉬더니 공인중개사 책을 집어 들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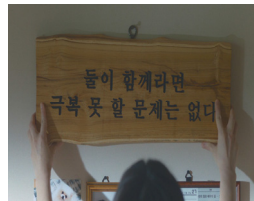
수진: (기가 찬다는 듯이) 하... 오빠? 바로 잘되는 게 어디 있어? 오빠 지금 잘하고 있단니까? 나는 오빠만큼 연기 잘하는 사람 못 봤어.

현수: 아, 하지 마. 그런 얘기 좀 그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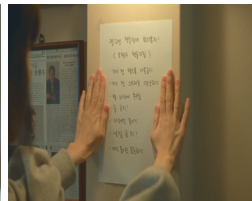
수진: (듣는 체도 안 하며) 오빠 무조건 성공해.

지쳐버린 현수는 이제 기약 없고 불안정한 연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고백한다. 이때 현수가 수진의 배에 대고 말하는 건, 현수의 선택이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진의 비난처럼 현수는 대책 없이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험서를 구매해 살펴보면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런 현수의 생각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채 기각한다. 수진이 보기에 현수의 고민은 어린아이의 투정과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이 바로 잘되라는 법은 없으며 잠시 힘든 순간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이에 수진은 현수의 제안을 일축하며 “오빠만큼 연기 잘하는 사람 못 봤어”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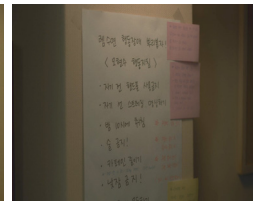
다른 장면에서 수진은 현수가 출연한 드라마를 보면서, 현수가 “너무 멋있”고 “안 어울리는 게 없네”라며 일방적인 칭찬을 보내기도 한다. 반면 현수는 이런 반응에 동의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연기를 부끄러워하며 바보 같다고 말한다. 그런 현수에게 수진의 한결같은 응원과 격려는 선의와 격려의 외피를 쓴 압박이자 막중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5〉에서 보듯 부부의 신혼집 거실에는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 할 문제는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걸려 있다. 영화의 초반, 수진은 비뚤어진 팻말을 가지런히 놓는다. 이는 수진이 이 내용을 소중히 여기며 신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부부 사진과 현수의 기사들보다 높은 곳에 걸려 있는 문구는 집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부부의 모든 행동을 응시하며 관장하는 법칙이자 대타자의 규율처럼 보인다. 수진은 부부간에 갈등과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관계에 균열이 갈 때마다 이 문구를 반복적으로 앞세우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현수의 의견을 묵살한다.

예컨대 현수는 자신의 수면장애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지며 강박증에 시달리는 수진을 위해 밖으로 나가 따로 자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현수는 침낭을 가지고 차에서 자려고 시도하거나, 고시원에서 살기 위해 알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진은 팻말에 적힌 명제를 앞세우며 현

수를 압박한다.

현수: (핸드폰의 고시원 사진을 보여주며) 나 당분간 밖에서 잘게.

수진: (고개를 가로저으며) 싫어.

현수: 아니, 집에 있으면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되잖아.

수진: (단호한 목소리로)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야. (중략) 그게 왜 쉬운 줄 알아? 포기해서 쉬운 거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 부부는.

수진의 논리에 따르면 부부라면 둘이 함께하는 게 당연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 둘이 함께라면 어떤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수진은 부부가 떨어져 사는 형태를 가리켜 “콩가루 집안”이라고 지칭한다. 수진의 성공 강박과 실패를 향한 두려움은 단지 사회적 차원(자신의 직장과 현수의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진은 가정에서도 스스로 ‘실패’라 여기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수진은 어머니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라며 일축한다. 현수가 어떤 증세를 보인다고 해도 두 사람은 떨어져 지내서는 안 된다. 그건 곧 ‘정상 가정’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결혼생활의 실패나 다름없다. 노동하지 못하게 된 수진에게 있어 이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대상에 대한 포기이자 인생 전체에서의 낙오나 마찬가지다.⁴⁴⁾

44) 수진이 아버지가 없이 성장했다는 사실도 수진이 현수와 떨어지거나 이혼하지 않고 어떻게든 가정을 봉합하여 ‘완전한 가정’ 혹은 ‘성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부추긴다. 수진은 남편 없이 아이와 둘이 지내는 아랫집 이웃 민정이 자신에게 공감을 표시하자 불쾌함을 표시한다. 이는 수진이 이혼 자체를 실패로 여기고 있으며, 남편이 있는 자신은 실패한 아랫집 여성과는 전혀 다른 처지라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조너선 크레리에 따르면 24/7 자본주의는 모든 걸 시장 논리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협력이나 연대의 가능성, 사회적 배치를 제거한다. 이로써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은 분쇄되고 주체는 타인을 향한 적의와 경쟁심을 강화한다(조너선 크레리, 앞의 책, 179쪽).

페르하에허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성공해야 하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신이 팽배”⁴⁵⁾하다.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24/7 자본주의의 강령은 수진에게로 와서 가정 내부의 규율로 변모한다. 변형된 규율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둘이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다(극복 못 할 문제는 없다).’ 하지만 파울 페르하에허는 “모두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외쳐대는 사회에서는 굴욕감과 죄의식,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⁴⁶⁾날 뿐이라고 지적한다. 누구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은 전적으로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나 때문이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나의 실패는 온전히 나의 탓이며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⁴⁷⁾이기에 어떻게든 성공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자아실현이자 인생의 의미를 제공한다. 이에 수진은 사회적 실패라 여기는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밤낮없이 일하고, 규율을 창조하고, 현수를 억압하며 둘이 함께인 가정으로 봉합하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수진의 끝없는 성공에의 강박과 탈락의 공포 속에서 현수는 더욱 무너져 내린다.

〈그림 6〉은 수진이 현수의 행동을 통제하는 여러 규범을 담은 지침이다. 실제로 이 문서의 제목은 “오현수 행동 지침”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기 전 핸드폰 사용금지, 밤 10시에 취침, 술 금지, 카페인 줄이기, 낮잠 금지, 운동하기” 등 온갖 금지와 제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자신에게 공감을 표시하는 타인을 향해 내보이는 강한 적개심은 수진이 적의와 경쟁심에 사로잡힌 24/7 자본주의적 주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45) 파울 페르하에허, 앞의 책, 206-207쪽.

46) 위의 책, 191쪽.

47) 위의 책, 193쪽.

집에 돌아온 현수에게 맥주 한 캔은 낮 동안의 고생에 대한 작은 보상이자 즐거움이지만, 수진은 현수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냉장고 안의 모든 맥주를 싱크대에 쏟아버린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규칙에는 더욱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 추가되고 포스트잇이 덧붙여져 현수를 더욱 촘촘히 규율하고 옥죄다. 현수는 24/7 자본주의를 내면화한 한 채 대타자의 법을 규율하는 수진으로부터 떨어져, 온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자신만의 쉼터로 가고 싶어 한다. 이때 현수의 표면적 의식은 수진과 딸 하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은밀히 수진이라는 대타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욕망한다. 실제로 현수가 영화 내에서 유일하게 수면장애에 시달리지 않고 숙면하는 장면은 수진이 정신 병원에 입원해 홀로 잠들게 된 이후다. 수진이 집을 떠나면서 현수는 규율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제야 비로소 현수는 안정을 얻고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게 된다(실제로 이 시기 현수는 완치 판정을 받는다).

3-2. 꿈의 실재성과 현실의 환상성

프로이트가 모든 꿈은 억압된 욕망의 위장된 충족이라 말했듯,⁴⁸⁾ 수면과 꿈은 불가분의 관계다. 영화 <잠>은 수면을 주요 소재로 다루지만, 꿈 장면은 한 번만 등장한다. 현수는 꿈꾸지 않는다. 수면 중에도 대타자의 시선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수에게 낮의 규율화된 시간과 밤의 해방된 시간이 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억압된 현수의 욕망은 위장된 꿈의 형태로도 충족되지 못하기에 현수의 현실은 황폐해진다. 반면 대타자를 내면화한 수진은 꿈꾼다. 출산 이후 수진의 꿈 장면은 수진 내면의 공

48) 앙토니 위아르, 『프로이트와 슈퍼히어로 - 정신분석이 슈퍼히어로를 만날 때』, 이세진 역, 필로소픽, 2023, 129쪽.

포와 은폐된 무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딸 하운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현수가 밤중에 언제 일어나 하운을 해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시달린다. 수진은 이전보다 더욱 강박적으로 현수의 행동을 통제하고 움아매기 시작한다. 수진은 온몸을 움짱달짝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침낭 안에 현수를 가두고는 침실 문에 전동 드릴로 지물쇠를 달아 걸어 잠근다. 수시로 현수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는 잠든 그의 입안에 처방받은 약을 마구잡이로 옥여넣는다. 그래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수진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화장실 욕조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운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밤새 한잠도 못 잔 수진을 발견한다. 현수는 이제 자신이 하운을 돌볼 테니 얼른 자라며 수진을 침대에 눕힌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밤을 지새우느라 고단했던 수진은 금세鼾아떨어지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눈을 뜬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다. 놀란 수진은 거실로 나온다.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온다. 수진은 울음소리를 따라서 집 밖으로 나간다. 쓰레기장을 미친 듯이 뒤지던 수진이 그 안에서 아이의 손을 발견한 순간 잠에서 깨어난다. 모든 건 수진의 꿈이었다. 현실로 돌아온 수진은 황급히 거실로 나와 현우와 하운을 찾는다. 하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힌 수진은 가스레인지 위에 펄펄 끓고 있는 곰솔을 바라본다. 수진은 곰솔 안에 아이가 들어 있을 거라 확신하고, 솔을 그대로 바닥에 쏟은 뒤 맨손으로 내용물을 해집는다. 그때 화장실에서 현수가 멀쩡한 하운을 어르며 걸어 나온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아들의 관을 지키다가 잠들어 버린 아버지의 꿈을 분석한 바 있다. 아버지가 자던 중 꿈에 죽은 아들이 나타난다. 아들은 자신이 불타는 게 보이지 않느냐며 아버지에게 호소한다. 놀라 꿈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촛불이 넘어져 아들의 수의에 불이 붙은 걸 발견한다. 이를 두고 프로이트는 현실 세계의 사건이 감각기관(불이 붙으면서 나던

연기 냄새)을 통해 꿈으로 침범하여, 주체를 환상으로부터 현실로 끌어냈다고 분석한다. 이와는 달리 라캉은 꿈이야말로 실재이며 현실이 환상이라는 반전된 해석을 제시한다.⁴⁹⁾ 라캉에 따르면 “우리가 실재를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꿈의 저편”이자 “표상의 결여 뒤에서 꿈이 우리에게 감싸 숨기고 있는 어떤 것 속에서”다. “실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⁵⁰⁾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라캉을 참조하여 꿈과 현실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것이 환상에 의해 구성된다면, 그리고 환상이 우리가 낯것의 실재에 직접적으로 압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스크린으로 기능한다면, 그때는 현실 그 자체가 실재와의 만남으로부터의 도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실과 꿈의 대립관계에서 환상은 현실 쪽에 있고, 우리가 트라우마적인 실재와 마주치는 것은 꿈에서다. 따라서 현실을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꿈(에서 공표되는 실재)을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⁵¹⁾

이에 따르면 아버지가 꿈에서 깨어난 것은 꿈속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적 실재와 마주했기 때문이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잠을 연장하기 위해 현실의 요소(불로 인한 연기)를 포섭하여 꿈을 재구성했다(꿈에서도 불이 났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기치 않게 꿈속에서 현실보다 더욱 강력한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에 실재와의 마주침에서 도망치기 위해 현실로 깨어났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49)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11 -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맹정현·이수련 역, 새물결, 2008, 95-96쪽.

50) 위의 책, 98쪽.

51) 슬라보예 지젝,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강우성 역, 북하우스, 2021, 190-191쪽.

있다는 끔찍한 진실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꿈이라는 실재로부터 현실이라는 환상으로 깨어난 것이다.⁵²⁾ 환상이란 주체의 트라우마적 단절을 은폐하기 위한 형성물이기 때문이다.⁵³⁾ 현실이 이데올로기적 환상으로 구성되었다면, 현실은 이제 진실이나 실재와 무관해진다. 현실은 꿈에서 드러나는 실재를 가리는 환상이자 도피처가 된다.

마찬가지로 수진의 꿈에서도 현실과 환상은 반전되어 있다. 꿈 내부에서 꿈으로 깨어난 수진은 하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어 바깥의 소리가 집 안까지 들릴 거 같지 않지만, 웬지 수진은 바깥 어디에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느낀다. 밖으로 나간 수진은 엉뚱하게도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힌 아이를 발견한다. 수진의 꿈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자신, 연기자로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현수,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 결국 실패해 버릴지 모르는 공포, 그로 인해 딸 하윤마저도 낙오자가 되어 쓰레기처럼 내다 버려질지 모른다는 트라우마적 실재를 보여준다.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힌 하윤의 모습은 수진, 현수, 하윤으로 구성된 그들의 가정 전체가 마주한 진정한 위기이자 파국적 상황을 의미한다. 수진은 꿈속에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가 구현된 끔찍한 실재와 마주하고는 견디지 못해 현실이라는 환상으로 깨어난다.

수진에게 있어 현실이라는 환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수는 재능과 실력이 충분한 연기자이다. 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건 운이 없었거나 현수를 알아보지 못한 안목없는 사람들 때문이다.⁵⁴⁾ 홀름

52) 위의 책, 같은 곳.

53) 슬라보예 지젝, 『자유: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앞의 책, 98쪽.

54) 수진은 연기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현수를 만류하면서, 현수는 앞으로 무조건 성공하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그동안 현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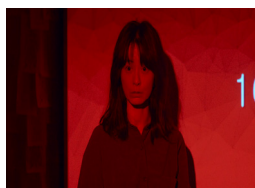
하게 커리어를 쌓고 연기 활동을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현수는 다시 연기자로 복귀할 것이고, 분명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 수진 역시 출산으로 인해 잠시 일을 쉬어갈 뿐이다.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조만간 일터로 복귀해 승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오컬트 버전 시나리오도 추가된다. 현수의 수면장애나 수진의 강박증에 두 사람의 책임은 전혀 없으며, 모두가 할아버지 귀신 때문이다. 아랫집 할아버지가 현수에게 빙의되면서 모든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것이다.

이처럼 수진은 마주할 수 없는 실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현실에서의 환상을 만들어 내거나 기겁게 받아들인다. 이와 관련하여 페르하에허는 오늘날 정신의학이 내리는 무분별하고 모호한 장애 진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 안도하고 감사히 받아들인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스스로 환자라는 “소위 유전학적, 신경생물학적 설명”을 통해 “조금 이나마 죄책감을 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⁵⁵⁾ 다시 말해 정신의학적 장애 분류와 진단은 내가 낙오되고 실패한 건 내가 실패자라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질병이나 장애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핑곗거리를 제공한다. 수진은 현수와 자신이 겪는 정신병리적 장애, 그리고 오컬트가 제공하는 비합리적인 빙의 가설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끔찍한 실재를 거부하고 현실이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 속으로 도피한다. 이러한 환상은 설사 거짓으로 구성되었더라도 실재와의 조우를 피할 수 있는 심리적 완충지대를 제공한다.

수진의 환상은 수진이 현수에게 아랫집 할아버지가 빙의되었다고 여기

55) 파울 페르하에허, 앞의 책,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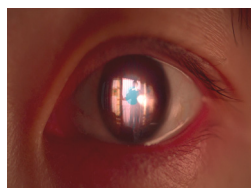
며 칼로 찌르려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진이 정신병원에서 홀로 퇴원하면서 환상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불확실한 정황들을 임의로 이리저리 꿰맞추면서 빙의 가설을 완전히 확신하게 된 수진은 현수를 치료하기 위한 피날레를 준비한다. 수진의 퇴원 날 병원에 간 현수는 수진이 전날 이미 퇴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집 안이 부적, 초 등 온갖 종류의 무속적 도구와 장식들로 뒤덮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

수진은 현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할아버지가 죽은 시점, 현수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 등)을 연결 지으며 빙의 가설의 합당함을 현수에게 설명한다. 이때 〈그림 8〉에서 보듯 수진은 마치 회사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업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듯 사진 자료와 문서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고 요약한다. 〈그림 8〉의 카메라 구도, 수진의 자세와 태도는 수진이 회사에서 일하며 프레젠테이션하던 상황인 〈그림 3〉과 유사하다. 이는 극의 전개상 다소 어색한 장면이다. 수진은 정신병원에서 갓 나와 아랫집 강아지를 냉동실에 넣고 이웃을 납치해 감금할 만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이성을 잃은 상태다. 의학적 판단을 믿는 대신 무속에 빠져 벽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수백 장의 부적으로 집안을 전부 도배를 해놓기도 했다. 그런데 현수에게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는 장면에서 수진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보인다. 이는 수진이 출산 후 노동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져다준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노동으로 복귀하고 24/7 자본주의 내부로 편입되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진이 진정으로 견디지 못했던 건 현수의 수면장애나 위험에 빠진 하윤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이 실패해 패배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강박적 불안이다.⁵⁶⁾ 이에 수진은 회사에서 늘 수행했던 익숙한 노동을 연장하여 집안으로 들여온다. 현수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노동하면서 평온함을 되찾는다.⁵⁷⁾

수진은 아랫집에 사는 죽은 할아버지의 딸 민정을 납치해 묶어두었다. 수진은 오늘 자정이 할아버지가 현수의 몸을 떠나 천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진이 떠나면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면장애에서도 벗어난 현수는 수진의 행동과 논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다.

현수: (두 손을 들며) 아이, 그만해.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밖으로 나가
기 위해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는다.)

수진: (현수를 향해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 할 문제는 없다'가 적힌 팻말을
집어던지며) 맨날 도망가기만 할 거면, 저런 거 도대체 왜 만들어? 문
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며!

56) 실제로 수진은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 한 번도 딸 하윤의 안부를 묻는다거나 하윤을 찾지 않는다. 대신 수진은 자신의 가설에 집착하며 할아버지를 현수의 몸에서 몰아낼 방법에만 몰두한다.

57) 물론 이때의 평온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가면에 불과하다. 수진의 설명과는 무관하게 제대로 해결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림 8>에서 화면 전체를 물들인 붉은 색감은 광기로 물든 수진의 내면과 이윽고 찾아올 파국을 암시한다.

수진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질려 집을 나서려던 현수는 수진이 다시 규율을 앞세우자 또다시 행동을 멈추고 순응한다(이는 현수가 여전히 대타자의 규율에 얽매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집 안으로 돌아온 현수는 화장실 욕조 안에 묶여 있는 민정을 발견한다. 수진은 민정의 머리에 전동 드릴을 대고 작동시키며, 당장 현수의 몸에서 떠나지 않으면 딸 민정을 죽이겠다고 현수(현수 몸에 빙의된 할아버지)를 협박한다. 수진이 도저히 대화로 해결될 수 없는 상태임을 직감한 현수는 수진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 행동하기로 한다. 그건 수진이 원하는 연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9〉에서 보듯 현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몸짓을 흉내 내면서, 이제 그만 가겠다며 딸(민정)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창가로 다가간다. 현수는 “거, 잡시다!”라고 말한 뒤, 창문을 열었다가 닫고는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쓰러진다. 수진은 그제야 할아버지가 떠나갔다는 사실을 믿고 “거봐, 다 극복할 수 있어”라고 말한 뒤,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든다.

의식적 차원에서 이 장면은 얼핏 수진이 제시한 초자연적인 빙의 가설이 옳았음을 드러내는 듯한 장면처럼 보인다. 실제로 할아버지가 현수의 몸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으며, 그간 발생한 이상한 일들은 모두 할아버지 귀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가 현수의 몸에서 할아버지가 떠나는 천도 장면에 어떠한 시각 효과나 음향 효과도 가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진이 제시하는 오컬트적 가설에 신빙성을 더할 아무런 증거나 연출도 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은 오컬트 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카메라는 현수가 할아버지를 연기하는 장면을 진조하고 담담하게 담아낸다. 특히 〈그림 10〉에서 보듯 할아버지(현수가 연기하는 할아버지)가 천도되는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카메라는 현수의 모습을 직접 담는 대신 수진의 눈동자를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잡는다. 화면에는 실제 현수가 아닌 수진의 눈동자 안에 반사된 현수의 모습이 간접적

으로 담긴다. 이는 수진의 빙의 가설이 실재가 아니며, 수진의 눈에만 비치는 주체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진은 자신이 만 들어낸 환상(두 사람이 겪은 증상이나 가정의 불화는 모두 귀신 때문이다)의 지속 안에서 자족하며 잠든다.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는 두 사람이 노동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현수가 실제로 빙의된 게 아니라면, 현수는 수진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노동(연기)을 수행한 셈이다. 현수는 연기자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24/7 자본주의라는 대타자를 내면화한 수진은 현수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수진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실재의 내용은 현수가 연기자로서 실패했다(혹은 실패를 인정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수진에게 있어 그것은 현수뿐 아니라 수진의 실패이자 '정상 가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진이 잠을 잘 수 있게 된 건 두 사람이 각각 프레젠테이션과 연기라는 노동을 수행하면서, 24/7 자본주의 시스템 내부로 다시 포섭되었기 때문이다. 익숙한 현수의 연기를 보며 수진은 안도하고 강박적 불안 증세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다. 수진은 “거봐, 다 극복할 수 있어.”라고 말한 뒤 잠에 빠져든다. 이때 극복의 대상인 ‘다’에는 부부에게 닥친 일련의 위기뿐 아니라, 현수와 수진의 직업적 성공, ‘정상 가정’의 형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혹은 둘이 함께라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결국 영화의 결말은 대타자가 만들어 낸 또 다른 환상(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 현수는 연기자로 성공할 것이다)으로의 도피를 보여준다.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불안정한 두 주체의 성긴 봉합일 뿐이다. 원치 않게 불안정 노동으로 복귀한 현수는 조만간 또다시 스트레스와 심리적 장애 증세를 보일 것이고, 수진 역시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채 강박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써 24/7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이데올로기

적 환상의 차원(‘노력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은 두 주체의 파멸을 거름 삼아 왕성하게, 씬 없이 지속된다.

4. 나오며: 체제 너머의 상상

우리는 충분히 휴식하고 수면할 권리를 빼앗긴 24/7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 24/7 자본주의는 중단 없이 작동하면서, 주체를 항구적인 각성 상태로 유지한다. 그 안에서 주체는 수면장애와 불안, 스트레스, 강박 등의 정신병리적 증상에 시달리며 차츰 망가지고 소진된다. 영화 〈잠〉은 이러한 현시대의 어두운 단면과 망가진 주체의 모습을 담아낸 징후적 텍스트다. 영화 내에서 현수와 수진으로 대표되는 두 주체는 24/7 자본주의의 톱니바퀴 안에서 돌아가다가 몸과 정신이 무너져 황폐화되고 소진된 인간들이다. 현수는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며 반복적인 실업과 초라한 수입이 가져다주는 무력함에 지쳐있다. 배우로서의 자긍심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른 일을 전전해야만 하는 고된 스케줄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그는 배우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강박적 공포에 사로잡힌 아내 수진 때문이다.

수진은 사회적인 인정과 성공에 관한 집착, 그리고 ‘정상 가정’(배우로서 성공한 현수와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수진은 어떻게든 현수를 억압하여 가정을 봉합하고 직업적으로 성공시키고자 시도한다. 수진은 현수를 대신하여 출산 직전까지 회사 일을 도맡고, 집에서도 잠을 설쳐가며 업무에 몰두한다. 수진은 현수의 이탈(성공의 가능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용납하지 못한다. 현수의 수면장애는 소진된 주

체의 영혼이 호소하는 비명이자 이상 증상이지만, 수진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더욱 꼼꼼하고 촘촘한 규율을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체제로부터 이탈하여 온전히 휴식하고 싶은 현수와 체제를 내면화한 채 현수의 대타자로 기능하는 수진의 조합은 애초부터 파국적 결말을 예비하고 있다. 수진의 통제와 억압이 거세질수록 현수의 증세는 악화되고, 반대로 현수가 나아질 때면 수진은 더욱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다. 극 중에 등장하는 무당이나 굿과 같은 오컬트적 요소는 불가해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도피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환상이자, 살아남기 위해 주체가 선택한 가련한 몸부림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수가 피해자이고 수진을 가해자로 보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 수진 역시 시스템에 포섭되어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일체화되어 버린 상태의 불행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지젝은 “오늘날 궁극의 ‘적’은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시스템 그 자체, 행위자로 쉽사리 귀속할 수 없는 시스템의 어떤 작동 양상”⁵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문제의 해결책을 개인의 부도덕이나 탐욕에서 찾으려는 손쉬운 시도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우리의 임무”⁵⁹⁾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치 탈역사화된 자연의 법칙처럼 기능하는 24/7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주체는 그 바깥을 알지 못한다. 현수와 수진이라는 불행한 두 주체는 오늘날 시스템의 너머를 상상하지 못한 채 신음하는 대다수 현대인의 자화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부도덕이나 탐욕에 초점을 맞춰 현수의 나약함을 꾸짖고 수진의 욕심을 비난한다 해도 바뀌는 건 없다. <잠>의 모호한 결말은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파국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파국을 끝장내고 황폐해진 수면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방법은

58) 슬라보예 지젝, 『천하대혼돈』, 강우성 역,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85-86쪽.

59) 위의 책, 87쪽.

증상 치료도, 강력한 법칙이나 규율의 마련도, 환상으로의 도피도 아니다.
우리의 과업은 시스템 자체를 겨냥하고 24/7 자본주의 너머를 모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유재선 감독, <잠>, 2023.

2. 논문과 단행본

김윤희, 「영화 <잠>에 재현된 현대인의 불안과 믿음」, 『어문논집』 제102호, 중앙어문학회, 2025, 195-220쪽.

박제철, 「영화-감각을 윤리적 행위로 '반복하기」 김소연 엮음, 『라캉과 한국영화』, 도서출판 b, 2008.

이소윤, 「영화 <잠>(2023)과 신탁 콤플렉스」, 『한국무속학』 제51호, 한국무속학회, 2025, 66-90쪽.

홍준기, 『라캉과 현대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지식』, 김재희·송은주 역, 아카넷, 2022.

마우리치오 랏자라토, 『정치 실험』, 주형일 역, 갈무리, 2018.

슬라보예 지젝, 『천하대혼돈』, 강우성 역,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_____,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강우성 역, 북하우스, 2021.

_____, 『자유: 치유할 수 없는 질병』, 노윤기 역, 현암사, 2025.

앙토니 위아르, 『프로이트와 슈퍼히어로 - 정신분석이 슈퍼히어로를 만날 때』, 이세진 역, 필로소픽, 2023.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11 -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맹정현·이수련 역, 새물결, 2008.

조너선 크레리, 『24/7 잠의 종말』, 김성호 역, 문학동네, 2014.

파울 페르하에허,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장혜경 역, 반비, 2015.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봉기』, 유충현 역, 갈무리, 2012.

_____, 『미래 이후』, 강서진 역, 난장, 2013.

_____, 『죽음의 스펙터클』, 송섬별 역, 반비, 2016.

_____, 『미래 가능성』, 이신철 역, 에코리브르, 2021.

3. 기타자료

- 김현승, <[김현승의 시네마 크리티크] 과감한 엇박자가 이끌어낸 왜감, <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3. 9. 11.
- 김현철, <‘잠 못자는 한국인’ 수면시간 7시간51분 꼴찌…OECD 평균은 8시간22분>, 『뉴스1』, 2021. 3. 19.
- 류근석, <국내 수면장애 환자 수 4년 새 28% 증가... 한국인 44% 7시간 미만 수면>, 『위메이크뉴스』, 2024. 3. 15.
- 심언기, <근로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저출산 韓, 노동환경 개선 시급”>, 『뉴스1』, 2023. 7. 16.
- 심희진, <“30분만에 잠 못들면 수면장애”...주말 밀린 잠 잘땀 ‘이것’만은 꼭 [생활 속 건강 Talk]>, 『매일경제』, 2024. 5. 11.
- 양유진, <봉준호 감독 “‘잠’ 유재선, 새로운 괴물 신인 감독의 탄생” 격찬>, 『마이데일리』, 2023. 9. 4.
- 오수연, <[잠 못 드는 한국] 한국인 65% “수면 부족”...슬리포노믹스가 뜬다>, 『아주경제』, 2020. 5. 15.
- 이이슬, <영화관 관람객 코로나 이전의 ‘반토막’>, 『아시아경제』, 2024. 1. 16.
- 장은수, <[장은수의이책만은꼭] 수면 부족 국가>, 『세계일보』, 2023. 10. 23.

Abstract

'24/7 capitalism' and the precariousness of the subject in the Film *Sleep*

Kim, Hyeong-Seek(Chung-Ang University)

Getting enough sleep is essential for human survival and well-being. However, South Korea is a chronically sleep-deprived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sleep quality levels in the world. The film *Sleep* explores the precariousness of life in Korea through the lens of sleep disorders. The concept of "24/7 capitalism" refers to a system that operates without rest or interruption, expanding indefinitely. Within this system, individuals are left defenseless and vulnerable, unable to sleep properly and developing psychopathological symptoms.

The film's two protagonists, Hyun-soo and Soo-jin, ar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exhausted under 24/7 capitalism. Hyun-soo, a precarious theater actor, struggles with daily instability as he constantly changes jobs to make ends meet. His erratic sleep behaviors, including violent outbursts and self-harm, worsen as doctors focus on treating the symptoms rather tha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 Soo-jin, driven by an obsession with success and the ideal of a "normal family," pressures Hyun-soo under the guise of encouragement. She perceives his professional failure as a personal and familial failure, assuming the role of an enforcer who disciplines and represses him, even to the point of committing crimes.

Hyun-soo's sleep disorder and their shared psychopathology manifest as symptoms of exhaustion and burnout under 24/7 capitalism. Seeking escape through illness proves futile in a system that denies any external refuge. In the end, they abandon their attempts to break free and return to the labor they have been conditioned to endure, resulting in only a temporary reprieve. This suggests

that rather than holding individuals accountable for their suffering, we must reimagine possibilities beyond the constraints of 24/7 capitalism.

(Keywords: 24/7 capitalism, subject, precariousness, ideology, illusion)

논문투고일 : 2026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 2026년 6월 15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8일